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2월 20일(주일) 제1079호



대학청년부 청년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 위로하고있다

낮은 곳에서 만나는 성탄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사역 실시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760가구에 생필품 전달

대학청년부가 '사랑앓나눔' 사역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대학청년부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사랑앓나눔' 사역을 실시했다.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가 서울 11개 지역 불우이웃 및 차

상위계층 760가구에 쌀과 반찬, 생필품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리를 청소하는 '클린무브먼트' 사역도 실시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을 받은 지역사회의 칭찬이 자자하다.

사랑앓나눔 사역은 공동체별로 실

시됐다. W, Pole2, 갈렙공동체는 쪽방촌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을 청소해줬다. 여호수아공동체는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요셉공동체는 중랑구 복지관, 길공동체는 노원구 복지관, SNS공동체는 수서명화복지관, 허브공동체는 밤골마을과 봉천

동, 하늘공동체는 관악구 노인복지관, M4U 공동체는 도봉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섬겼다.

대학청년부 본부장 김승수 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매년 '사랑앓나눔' 사역을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되새기고 있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학청년부부는 12월 27일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여름 이웃리치를 갔던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성탄축하예배 25일 오전 9시, 11시30분, 오후 2시

캠퍼스별 예배 ... 성탄전야 행사도 풍성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가 성탄 축하예배를 12월 25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드린다.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은 오전 9시와 11시30분, 평택은 오전 10시, 강동과 양지는 오전 11시에 드린다. 성탄 축하예배에서는 '로제타 홀' 선교사

에 관한 영상이 상영된다.

성탄전야 행사도 다채롭다. 서빙고 차세대 과워웨이브(중고등부)는 24일 오후 6시 경천홀에서 'Christmas Passion' 행사를 개최한다.

수원과 대전 온누리교회는 24일 오후 7시30분에 '슈퍼스타 온누리'

행사를 개최한다. 남양주는 23일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가족잔치', 평택은 '10주년 감사 찬양콘서트', 인천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강동은 차세대가 주관하는 성탄축하예배를, 양지는 차세대가 성탄축하공연을 한다.

2000선교,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 발간

2000선교본부가 12월 24일 간증집〈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를 발간한다. 간증집〈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에는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56명의 간증이 수록되어 있다. 간증집〈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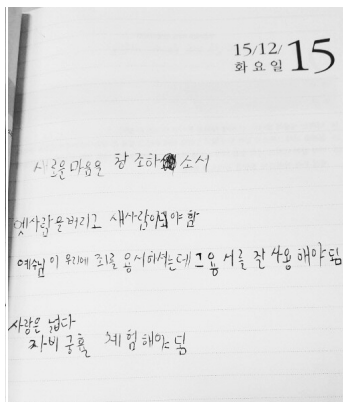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설교노트 쓰는 8살짜리 꼬마 박시원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지난 17일 새벽 여기는 수원 온누리교회.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잔뜩 움츠려 있었다. 그런데, 눈앞에서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다. 8살짜리 꼬마가 설교노트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낙서를 하면서 설교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되자”

분명 설교를 기록하고 있었다.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글귀였다. 맞춤법도 틀리고 빼돌빼돌 글씨체를 보면 영락없는 꼬마인데,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을 보니 웬만한 어른보다 낫다. 그 모습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6살 때부터 설교노트 적기 시작

오늘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수원 온누리교회 박시원 어린이네다. 아빠 박술한 성도, 엄마 김지미 성도, 아들 박시원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수원 차세대 김종아 목사는 시원이를 이렇게 소개했다.

“새벽에 두 손 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린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기특하죠?”

시원이가 4살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5년째 온 가족이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 준 신앙이 시원에게 고스란히 전수된 것이 분명했다. 아빠 박술한 성도는 바쁜 직장일로 평소에는 새벽기도에 참

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40일 새벽기도회 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40일 새벽기도회에 꼭 참석하려고 해요.”

사실 아빠 박술한 성도는 잦은 야근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곤욕이다. 그런데 그가 40일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원이 덕분이다.

“학교 가라고 깨울 땐 못 일어나는데, 신기하게도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면 한번에 벌떡 일어나요.”

시원이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좋아하니, 부모로서 안 감 수가 없던 것이다.

시원은 4살 때는 유모차 타고 새벽기도회에 오고, 5살이 됐을 때에는 자기 발로 걸어왔

다. 글을 깨우친 6살 때부터 설교노트를 적기 시작했다. 엄마가 설교노트 적는 것을 보면서 따라한 것이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다.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도 늘었다고 한다. 시원은 이제훈 담임목사의 설교를 가장 좋아한다. 다른 강사가 설교하면 설교노트를 제대로 적지 못하는데 이제훈 목사가 설교하면 곧잘 받아 적는다.

시원이가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되자”고 적어놓은 것을 보고 또 봐도 신기하고, 놀랍고, 기특했다. 비록 맞춤법은 틀렸지만, 아이의 기특함이 그저 대견했다. 시원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스스로 일찍 자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학교를 안가니까 금요일 밤늦게까지 TV를 봤을 텐데 40일 새벽기

도회가 시작되자마자 스스로 일찍 자더라고요. 아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자녀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시원이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시원의 신앙생활은 분명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다. 시원이 부모도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결코 어리지 않아요. 스스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원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한마디 거들었다.

“친구들아, 우리 같이 새벽기도하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 선배들을 찾아서 1

옥탑방 의사,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한국교회사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와 더불어 신앙 선배들의 살아있는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진정한 인간애를 실천한 의사 장기려 박사다. 그가 근무하고 살았던 복음병원(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옥탑방, 장기려 박사 기념관에 다녀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기려 박사는 1911년 평안도 용천 출생이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서 진찰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

전쟁과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951년 1월 천막으로 된 무료진료소(현 고신대 복음병원)를 설치했다. 또한 장 박사는 부산의 간질 환자들을 위한 모임 장미회(간질 환자 치료모임)를 창설했고, 부산 생명의 전화도 설립했다. 당시 장애자 재활협회 부산지부 창립에도 앞장섰다. 1968년에는 국내 최초 의료보험조합 ‘청심자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다.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다 먼저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것이다.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일화는 수없이 많다.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게 자기 돈으로 수술비를 내준 일은 다반사였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월급 수표를 통째로 주고, 치료비를 못내 퇴원을 못하는 농부에게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살짝 도망치시오”라고 말한 일, 가난 때문에 잘 먹지 못해 병이 난 환자에게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장기려 기념관.

값을 내주시오”라고 처방전을 써 준 일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올해가 장기려 박사 추모 20주이다. 부산 초량야구장에 있는 장기려 기념관에 가면 그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박사이사이상 상장과 메달, 의사가

운과 청진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문의 051-468-1248).

그가 살았던 복음병원 옥탑방에도 가 볼 수 있다. 병원 옥탑방 앞에 붙은 문패가 장 박사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도 그가 쓰던 책상에는 친필 진료일지와 의학적, 성경적, 특히 성경필사 메모지 등이 놓여있다. 아쉽게도 사진촬영은 불가.

문의 051-990-6010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이

사도행전 8:4~17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면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는 말이 역사 속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줍니다. 불을 꺼뜨릴 것 같은 바람이 오히려 불을 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바람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이 더 넓고, 강력하게 증거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능하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전파의 역사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질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도리어 그 핍박을 통해 복음이 더 넓게, 더 빨리, 더 강력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반처럼 용감하게 순교하는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 하셨습니다.

핍박할수록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왜 사도들만 남았을까요. 첫째, 당시 핍박이 스테반과 같은 헬라 문화권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더 가혹하게 핍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비교적 안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만 그 이후 로마제국의 강력한 핍박으로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이 시점에 시작된 핍박은 모두가 해당되었습니다.

둘째, 사도들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로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순교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도리어 복음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졌다’는 단어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핍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복음증거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시도가 도리어 복음이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대반전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금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순교하도록 만들었지만 교회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되었을 때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대부흥을 경험한 후예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반도 전체가 부흥의 열기로 타오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바람은 복음의 불길을 더 타오르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하신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을 향해 나아가 하는데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땅 끝을 향해 흩어지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강압적이고, 외부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땅 끝을 향하여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발적 흩어짐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이

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75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왜 전 세계로 흩어졌을까요.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교육적 이유 등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1907년 이후 대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떠나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이유는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대반전을 이루시려는 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최악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좌절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십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영적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거되어야 할 불순분자들입니까. 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악의 축입니까. 교회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존재하는 곳마다 악이 창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지성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스테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1절).

아무 죄가 없고, 사회에 악을 끼치지도 않았는데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지성은 그 일을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들여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3절).

이 파괴적인 모습도 보십시오. 제정신이라

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몰살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탄을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복음과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적들이 필요했던 이유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듯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5-8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 육체적인 질병이고, 무엇이 귀신에 사로잡힌 현상인지를 잘 구별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낫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이 왜 필요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적 세력을 능가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로만 전하면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능히 이기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낫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13면에 계속)

작은 예수들이야기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엔젤트리, 노숙인, 쪽방촌, 다문화가정 섬김, 쓰러진 소년 위한 기도까지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작은 예수들 덕분에 더 이상 참지 않다. 사회선교부는 엔젤트리 행사를, 대학청년부는 노숙인, 쪽방촌, 다문화가정 섬김, 안산M센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뇌출혈로 쓰러진 성균이를(10살) 살려 달라고 한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었다. 그 기도 덕분에일까, 성균이가 62일 만에 깨어났다. 이처럼 구들장 같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편집자 주

62일 만에 깨어난 성균이

지난 7월 4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성균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였다. 성균이는 이제 겨우 10살이다. 성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던 소년이었기에 더 비통했다. 성균이는 성품이 바르고, 성숙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아이였다. 야구와 수영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어느 날 수영을 하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결국 수영장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아빠의 전화번호를 말할 만큼 의식이 분명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 성균이가 쓰러지자마자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다. 그 작고 뚱뚱하던 아이의 뇌혈관이 갑자기 터진 것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균이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아가 성균이와 성균이 부모를 위로했다. 그렇게 잠이 든 성균이는 62일 만에 깨어났다.

“자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균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한 말이다. 성균이는 지금 간단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성균이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다. 그것은 아빠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꿈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균이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빠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누구보다 성균이 엄마가 고생이 많았다. 성균이 엄마는 내년 1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임신한 몸으로 6개월 동안 성균이를 간호하면서

지칠 법도 한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성균이 엄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균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성균이를 엔젤트리 사연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지금 남양주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성균이의 사진과 동영상 가득하다. 지금 남양주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에는 성균이를 응원하는 편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성균이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기도하겠다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 열매가 이토록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

꼭 필요한 선물 받은 이웃 2천여 명

엔젤트리에 맺힌 열매가 여기 또 있다. 엔젤트리가 이번에는 노숙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옷을 보내주었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엔젤트리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옷, 수면양말, 핫팩, 담요 등을 선물했다.

길공동체 이혜민 자매가 SNS를 통해 헌옷을 모집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천사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다. 헌옷뿐만 아니라 새 옷이 배달된 경우도 있었다.

엔젤트리를 통해 옷을 선물 받은 한 노숙자는 “깨끗한 걸옷이 없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선물 받은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어린아이처럼 좋

아했다.

길공동체 하태성 형제는 엔젤트리 사역을 통해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사랑을 나눠준 천사들이나 받은 사람들 모두 주인공이었다. 노숙자에게 옷을 선물한 한 기증자가 보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모님 사업실패로 온 식구들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무너져 가던 가정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됐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엔젤트리에 참가합니다.”

그 천사가 보낸 선물을 수원역 앞 노숙자 나뭇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올해 21살 된 형제가 받았다. 그는 지적장애인이다. 선물을 받은 그 형제가 선물을 보내준 천사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가끔 용돈을 벌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활동하기 좋으면서 따뜻한 옷을 선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형제처럼 엔젤트리를 통해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은 이웃들이 2천여 명이나 된다. 엔젤트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는지 모른다.

수원역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수원역 광장에서 5분쯤 걸었을까. 다리 밑 육교에서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보였다. 모두들 성난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있다. 누가 왔는지 지켜보는 눈빛이 매섭다. 공중 화장실 옆 박스가 널부러진 이곳이 그들의 아지트였다. 매주 주일과 월요일 저녁 7시가 그들의 식사 시간이다. 대학청년부 길공동체 청년들이 브라이트처치 이하얀 목사를 도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이하얀 목사는 수원역 일대에서 ‘밥 엄마’로 통한다. 그녀는 노숙자들

에게 누나이자 엄마로 불린다. 이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료수와 빵을 주던 것이 밥과 국으로 발전했다.

노숙자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네 배추밭에서 우거지를 주워다가 삶고 말리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150명의 노숙자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천군만마와 같았다. 돌이 힘을 합쳐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새삼 다시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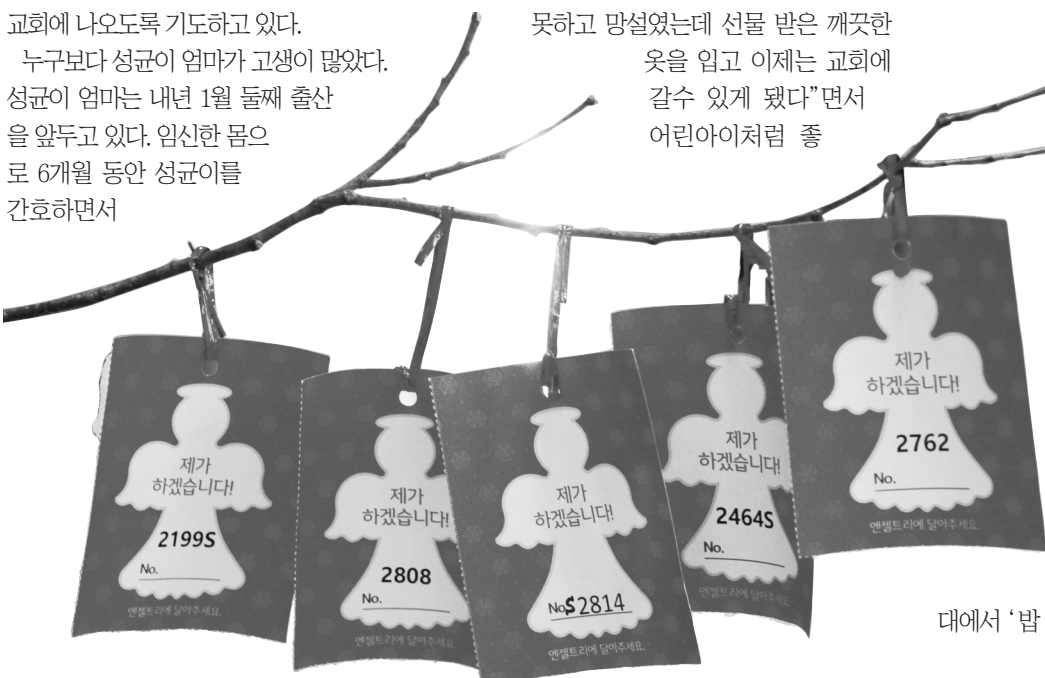
‘사랑앓 나눔’ 쪽방촌을 가다

지난 12일 오전 9시 여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실. 옛날 얼굴의 청년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대학부 Pole2공동체 지체들이다. 이날 모인 29명의 청년들은 용산구 동작동 쪽방촌에서 ‘사랑앓 나눔’ 사역을 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서울시 용산구 동작동에 있는 쪽방촌이다. 동작동에는 1,000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날 Pole2공동체는 가정당 쌀 20kg, 라면 1박스, 생필품(삼푸, 비누, 치약, 칫솔 등), 반찬 등을 선물했다. 선물을 포장하고, 조를 나누어 방문했다. 물품이 있는 곳에서 집까지 거리가 상당한 곳도 많았는데 청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배달했다.

이날 총 50가구를 방문했다. 모두 쪽방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몇 번씩이나 오르고,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가는 통로를 지나 물품을 전달했다. 힘들게 사역하면서도 청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선물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난방은 잘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살뜰히 챙겼다. 주민들도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Pole2공동체 이서진 목사는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적인 청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후원과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Pole2공동체 박애리 자매는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섬김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랑앓 나눔’은 대학청년부가 매년 겨울에 실시하는 사역이다.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지역을 청소하는 사역이다. 지난 12일과 19일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는 11구역, 760가구를 방문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현장이었다.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

지난 5일 대학청년부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서빙고, 안산, 수서에서 다문화가정을 태운 버스가 일제히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스키장으로 출발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크밸리 스키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으로 돌아갔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이 났다. 그동안 팍팍했던 생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날 윈터캠프에 참가하면서 난생처음 스키를 타본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도 겁먹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대학청년부 봉사자들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다. 극진히 섬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J4U 공동체 김규진 형제는 윈터캠프 내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섬기는 동안 혹시나 실수하거나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가 만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모,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허물없이 대했다. 그러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캠프 둘째 날에는 세족식이 이어졌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다. 9명의 자녀를 둔 일본인 가족이 눈길을 끌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기도해줬다. 자식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여호수아공동체 이지연 자매는 “여태껏 색안경을 쓰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봤던 모습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을 배운다 ‘스타트리 아카데미’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다문화가정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조금 일찍 알렸다. 지난 11일, 스타트리 아카데미가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영어뮤지컬로 선보였고, 초등부는 성경인물 모세가 되어 스토리텔링과 십계명을 암송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크리스마스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등부는 영어 캐럴을 준비했고, 중등부는 중국어 노래와 피아노 독주를 했다. 온누리M센터 도규석 목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제로 설교했다.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해있다. 안산은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내국인(38%)보다 외국인(62%)이 더 많다. 그만큼 다문화가정도 많다. 2개의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 이에 안산M센터는 2011년부터 스타트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영어, 음악, 성경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에서 한국어 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영민 성도는 서울에서 안산까지 왕복 4시간을 달리고 있다. 그는 다

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독서와 논술,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활용교육)도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섬긴지 8개월 정도 지났다. 조금씩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 건강한 정체성과 가치관

도만 들어가고 있다.

스타트리 아카데미에서는 중학생들을 위한 영적 멘토 및 체육활동 교사, 진로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다. 중보기도자와 악기 지도를 해줄 재능기부자와 가정방문 봉사자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1. 스타트리 아카데미
2. 엔젤트리
3. 성균이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4. 윈터캠프
5. ‘사랑앓 나눔’ 사역

온사랑어머니합창단

장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발달장애인 자녀 합창단 만들고, 자신들도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라짜 짜가 엄청난 기운이~♪”
1970년대 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만화영화 ‘짱가’의 노래 가사다. 이 노
래를 들으면 ‘짱가’의 기운찬 모습과 억
척스러운 ‘대한민국 엄마’의 이미지가 동
시에 떠오른다. 왜일까. IMF 시절 어디선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대한민국 어머
니의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국제전화 TV광고의 영향이다.
여기 ‘짱가’보다 더 기운 센 엄마들이 있다. 주인공은 ‘온사랑
어머니합창단’이다. 그들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사랑합
창단의 어머니들이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인
과 비교해 교육효과도 더딘 발달장애인들을 꽤 근사한 합창단으
로 만들기까지 그들의 수고를 감히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온사랑어머니합창단 이정림, 김은화, 박효양, 김경숙 어머니(왼쪽부터)

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따
뜻한 보살핌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따
뜻한 보살핌 덕분에 성장할 수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속도가 더더 어머
니의 보살핌을 평생 동안 받아야 하는 사람들
이 있다.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을 키
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떨까. 아무래도 손
이 더 가고, 언제까지 함께할 수 없으니 남들
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렇기에
힘에 부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니까.

억척스런 엄마의 힘은 장애도 뛰어 넘는다.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것을 실제로 이뤄
낸 장한 어머니들이 여기 있다. 우리는 그들을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이라고 부른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면 바빠지는 손길들이
있다. 한 명은 구석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멀뚱하니 쳐다보는 이가 있고, 자
신의 간식을 나눠주는 이도 있다. 그들은 서빙
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층에서 만난 온사랑합
창단이다. 그들의 어머니들도 함께 있다.

발달장애는 지각, 인지, 운동, 언어 등 발달영
역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다. 크
게 ‘지적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특이적 발
달장애’ 세 종류로 나뉜다. 온사랑합창단은 발
달장애인 단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
년 6월, 교사 4명과 12명의 발달장애인이 모여
시작했다.

온사랑합창단과 온사랑어머니합창단

온사랑합창단 김보라 자매는 3급 지적장애
인이다. 온사랑합창단 초창기부터 활동했다.
그녀의 어머니 이정림 성도는 딸과 함께 울고
웃은 날이 허다하다. 2011년 어느 날, 문소현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보라 어머니,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
간되세요?”

“그럼요 우리 보라에게 남는 것은 시간뿐이
예요. 날마다 참석할 수 있어요”

김보라 자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사랑합



온사랑어머니합창단 어머니들이 연습하고 있다.

창단 여성 솔로로 찬양하고 있다. 보라 자매가
솔로로 찬양을 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
말 많았다. 무엇보다 보라 자매는 감정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 서툴렀다. 겉으로는 정상인과 비슷할지라
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30년 동안 보라 자
매를 곁에서 지켜온 어머니 이정림 성도는 그
런 딸에게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어머
니의 격려와 기도의 힘이 지금의 보라 자매를
길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영건 형제는 뇌병변 자폐1급 장애인이다.
그의 어머니 김경숙 성도는 “있는 모습 그대
로 받아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강조
했다. 권영건 형제는 장애 정도가 심했다. 가만
히 서있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런 그가
온사랑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장애가 많이
고쳐졌다. 무대에 설 때는 가만히 있고, 반복
학습을 어려워하던 그에게 따라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무대에
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박자와 음정을 따라가기 힘든데, 그들
은 오죽할까. 장애 등급과 유형에 따라 반응들
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들을 제
어하는 것이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의 역할이다.
온사랑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오르고, 내려오는
일도 어머니들이 돕고 있다.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제어시켜주면서 그들의 상

태를 확인해야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희망적으로 이야
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도 그
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연습하고 또 했다. 그러기를 셀 수 없이 반복했
다. 그러자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이 조금씩
받아졌다. 자신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의
지가 생겼다. 무대공포증도 사라지고, 자신감
을 회복했다. 가장 좋아진 점은 협동심이었다.
보통 장애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데 온사랑합창단은 달랐다. 5년 동안 열심
히 훈련한 덕분인지 서로를 챙기고 배려했다.

온사랑합창단이 무대에 서기까지 어머니들
과 교사들의 노고는 말로 다하지 못한다. 전문
성악가들, 음악 전공자들, 특수학교 교사들과
일반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사랑합창단을 지도했다. 성악을 전공한 교
사들은 두세 명씩 레슨을 했고, 비전공자들은
노래 가사와 발음을 지도해줬다. 교사들과 부
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온사랑합창단을 탄생
시켰다. 그렇게 그들이 꿈의 무대에 서게 됐다.

그들의 노래와 꿈

온사랑합창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생긴 것이
바로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이다. 2급 지적장
애인 배우현 형제의 어머니 김은화 성도는 “운

전할 때도 음악을 틀고,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내 실력도 성장했다”고 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지인들이 “아들
잘 둔 덕분에 무대에도 서게 됐다며 부러워한
다”고 자랑도 했다. 그녀가 받은 은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온사랑합창단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장애인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다.
옆에 있던 김경숙 성도도 한마디 거들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이 많이 좋아
졌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배울 점도 많
아 사랑으로 더 품게 됐어요”라고 했다.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의 노래 실력에도 힘이
불기 시작했다. 장애가 있는 자식을 돌보느라
정신없던 어머니들이 달라졌다. 황화자 단장
은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의 발성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악적 기초가 없었는데 온사
랑합창단을 섬기면서 재능이 생겼다. 그 덕분
에 온사랑어머니합창단원들도 자신감이 생겼
다. 서로 음정을 맞추려 노력했고, 발음을 정확
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음악지도를 받으
면서 실력이 성장한 것이 아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연습했고, 서로의 음정을 고쳐
주면서 실력이 늘었다.

지적장애 2급 전명훈 형제 어머니 박효양 성
도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딜 가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늘 걱
정과 조바심 속에 사는 어머니들에게 음악이
안정과 여유를 선물해 줬다” 고 말했다. 온사
랑어머니합창단에게 음악이 더 특별한 이유
가 바로 그것이다.

온사랑합창단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음악과 함께 했다. 그 시간들은 어
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줬다. 그리
고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을 탄생시켰다. 오늘도
위대한 어머니들은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
고 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야 할 날
이 오지만, 온사랑합창단에서 배운 협동심과
자신감을 통해 더 큰 꿈을 그려 나가기로 소망
합니다.”

Pole2공동체 11년 섬긴 부부멘토 은퇴식

홍성호 장로와 허경은 권사

지난 13일 Pole2공동체 부부멘토 홍성호 장로와 허경은 권사의 은퇴식이 열렸다. 사역을 붙여예배로 옮기면서 대학부 부부멘토 사역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홍성호 장로와 허경은 권사는 지난 11년 동안 대학부 부부멘토로 섬겼다. 2004년 바울공동체 멘토를 시작으로 2015년 Pole2공동체 멘토까지 부부멘토로서 청년들을 참 열심히 섬겼다. 아직도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부부멘토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Pole2공동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변화다. 파격적인 시도와 다양한 변화가 그들의 특징이다. Pole2공동체는 극장과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유명하다.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공동체다.

홍성호 장로와 허경은 권사는 Pole2공동체 역사의 산증인이다. Pole2공동체가 2003년 4월 20일 '바울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04년부터 그들과 함께 했다. 당시 바울공동체는 종로구에 위치한 허리우드 극장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 지체들을 지역교회로 파송하면서 생긴 공백에 또 다른 공동체가 태어났다. 'M2(Miracle Maker) 공동체'였다. 당시 M2공동체는 홍익대 앞에 위치한 m2나이트클럽, 롤링홀, 캐치라이트에서 예배를 드렸다. 피카디리극장과 명보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Pole2공동체는 바울공동체와 M2공동체가 합쳐진 것이다. 지난 3월부터는 대학로 동숭동에 위치한 청년희망공간 '이룸'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홍성호 장로와 허경은 권사는 Pole2공동체가 있기까지 가장 든



Pole2공동체 멘토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홍성호 장로와 허경은 권사(가운데).

한 후원군이였다. 버팀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6번이나 예배장소를 옮겼고, 7명의 목회자가 바뀌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공동체를 지켰다. MC단(리더십)과 순원들을 자식처럼 챙기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줬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몸소 보여줬다. 도심 속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다보니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었다. 그만큼 공동체와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크고 깊었다. 홍 장로와 허 권사는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다. 이른바 '밥상공동체'의 완성이었다.

홍 장로는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였다. 청년들에게 비전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허 권사는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였다. 청년들에게 일

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부모와도 터놓고 말하지 못한 고민들을 들어줬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머니보다 더 세심했다. 그들은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이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에 많은 청년들이 감동했다. 사역을 옮기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멘토가 청년에게

“총체적 영성 지닌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섬긴 덕분에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역할, 저는 아버지 역할을 하겠

“지난 2004년부터 대학부 멘토로 섬겼습니다. 대학부 사역은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부멘토로

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1년 동안 섬기면서 청년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특성상 예배장소를 이동해야 하고,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번 세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Pole2공동체 청년들은 성숙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Pole2공동체

부부멘토를 내려놓으면서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총체적 영성을 지닌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블레즈 파스칼의 책 <광세>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총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파스칼의 영성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최초로 계산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도 파스칼처럼 영성과 지성, 신기술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는 기술에 대한 민감성이 높습니다. 신기술은 영

성에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창의적 영성이 생깁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십시오. Pole2공동체 청년들은 건강한 영성을 지녔습니다. 매년 평창 아웃리치를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 홍성호 장로

멘토가 멘토에게

“두 분의 섬김을 잊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섬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멘토들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배풀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홍성호 장로님은 Pole2공동체 거목과 같은

분입니다. 넉넉히 풀어주고,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멘토들이 걸어갈 방향을 알려 주셨습니다.

허경은 권사님은 공동체를 돌보는 어머니셨습니다. 여성멘토들과 함께 공동체와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늘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도 두 분을 따라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 김영진 멘토



시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축스러워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청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한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저희들의 스승이자 부모였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멘토님이 생각납니다. 두 분은 항상 “요즘 잘 지내요?”라며 먼저 인사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주

습니다. 멘토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멘토님 덕분에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멘토님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Pole2공동체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앞으로 Pole2공동체는 더 넓은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응원 해주십시오. 멘토님께 배운 믿음을 통해 소망이 싹트고,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멘토님 사랑합니다.

/ 꺾아람 자매



선교사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 발간
선교사 56명의 웃음과 눈물, 은혜와 사랑 담겨

연재_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하다

1. 선교사 간증집 발간
2. 2015 선교헌금 결산
3. 2016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56명의 이야기를 담은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가 오는 24일 발간된다. 선교사들의 웃음과 눈물, 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온누리교회 초창기 선교사,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부, 단 하나의 사역을 위해 22시간을 달려가는 선교사, 무슬림 청년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췌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바이라, 화장실에서 회심하다

동아시아 A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서너 달 지났을 때 일이다. 성도 중에 신실하고 예쁜 자매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상당히 유명한 전과자에 폭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아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핍박했다. 틈만 나면 교회에 들락거리며 아내를 감시했다. 그가 나타나면 교인들도 두려워 슬금슬금 피할 정도였다. 선교사인 나는 무서워도 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무리 무서워도 그에게 다가가 음료수도 주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봐주고, 한없이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려 애썼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교회에 자주 왔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말을 고분고분 듣기 시작했다. 시장판에서 종종 벌이던 싸움도 줄었다. 순한 양이 되어갔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허락하고, 자신도 시간이 되면 주일예배에 나오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주님을 영접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기대는 풍선처럼 허무하게 터져버렸다.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그가 술을 잔뜩 마시고 교회를 찾아와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이 교회 불 질러 버릴 거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도 했다. 나는 끌려가는 그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부끄럽고, 창피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다. 주일이 되었고 나는 설교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 밤 그는 아내

를 때리고 난 뒤 성경을 찢고 불태웠다. 성경을 태우고 난 뒤 화장실에 가려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잣대미로 변해버린 성경을 뒤적거리다 간신히 멸절한 종잇조각 몇장을 건져 화장실에 갔다. 불일을 보던 그가 무심코 들고 간 종잇조각에 눈을 돌렸고,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사야서 말씀이 그의 가슴에 박혀버렸다.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는 내 백성을 치며 폭행하며 악행을 멈추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 말씀은 명백하게 그를 향한 말씀이었다. 악행을 저지른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었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일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철희 선교사

*이철희 선교사는 동아시아 A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다. 1996년에 파송되어 20년째 사역중이다.

너의 고맙다는 말, 하나님의 찢는 위로

“아빠, 선교사로 하나님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은 2012년 5월 남아시아 F국에 있는 둘째 딸 부부를 만나러 갔을 때 딸이 나에게 한 말이다. 제3세계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일하다보니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 알겠다는 것이었다. 해준 것 없이 고생만 시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 가정은 1983년 선교지에 갔다. 그때 첫째 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4살이었다. 유난히 입이 짧았던 둘째는 달라진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다. 엉엉 울면서 “우리 왜 여기에 왔어?”라고 묻는데 말문이 막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9개월을 기다린 끝에 우리가 선교지로 정한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주 바뀌는 환경 탓인지 차분하던 둘째가 산만한 아이로 변해 있었다. 기본적인 공부조차 어려워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했다.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아이를 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내던 마을은 자연과 가까웠다. 동물을 좋아하던 둘째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많은 동물들과 어울리고, 카누를 타고, 맨발로 뛰어 다니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들은 일 년 동안 한국학교에 다녀야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글공부를 또 해야 한다

는 사실이 싫어서 불멘소리를 내뿜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평평 울기도 했다.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의 사정을 들은 몇몇 자매들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었다. 선교회와 교회에서 열린 캠프와 ‘솔티찬양단’에 들어간 것도 버팀목이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대학공부를 했는데 조금씩 배워둔 한국어 실력이 그때 요긴하게 쓰였다.

그제야 “왜 우리만 또 공부해야 하느냐?”며 투정부리던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줬다. 더 이상 산만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아이는 지금 남아시아 F국에서 남편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기업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아이가 “아빠, 선교사로 하나님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한 말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겪었을 수많은 혼란, 좌절, 아픔을 자산이라고 말해주는 아이가 고맙다. 아이들이 힘들 때 도움을 준 믿음의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때로는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의 부름에 순종해 그 자리를 지켜주니 참 좋구나!”

/ 박연화 선교사

*박연화 선교사, 김의정 선교사 부부는 온누리교회 창립 2개월만에 선교를 간 가정이다(1985년 파송).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7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루터하우스 정문에서 광장 쪽으로 몇 걸음 가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두 번째 인물 ‘멜랑히톤 하우스(Melanchthon Haus)’가 있다. 그의 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박물관으로 새 단장을 하였다. 멜랑히톤은 루터의 친구이자 변호자였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이어 교수, 성경학자, 철학자였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재직 중 그 대학에서 열린 신학 논쟁에서 루터의 주장을 듣고 평생 동지가 되었다. 1518년 프레드리히 대제에 의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루터와 함께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루터가 헬라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감수하여 출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는 루터와 가톨릭 교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재 역할을 하면서 루터를 변호하였다. 그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신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 함으로 루터의 개혁신앙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었다.

멜랑히톤 하우스를 나와 광장 쪽으로 걷다 보면 비텐베르크 대학이 나온다. 지금은 정식 명칭이 루터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로 불린다. 이 대학은 좁은 광장과 높지 않은 빌딩 하나가 대학의 전부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성인들의 학문의 장이었고, 사회를 이끌 인재를 배출하는 훌륭한 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1502년 루터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프레드리히 대제가 세웠다. 루터는 교수로 근무하며 이곳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비텐베르크 대학을 나와 조금 걸어 올라 가면 넓은 마르크트 광장이 나온다. 그 광장 중앙에는 성경을 들고 서 있는 루터와 문서를 들고 서 있는 멜랑히톤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이 광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켓이 열리는데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사먹는 것도 좋다.

루터의 동상이 있는 광장 오른쪽으로 한 블록 뒤에 높은 두 개의 종탑을 가지고 있는 City Church(지금은 Stadtkirche)가 있다. 당시 담임목사였던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 목사는 루터의 개혁에 가장 먼저 가담했다. 100년 전 프라하의 베들레헨 교회처럼 최초로 자국어인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다. 그는 루터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관하였으며 루터의 여섯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루터는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2,000편의 설교를 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배당 밖 오른쪽 지붕 끝 부분에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글귀와 어미 돼지와 새끼들의 조각이 있다.

두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루카스 크라나크(Lucas Cranach) 하우스가 있다. 그는 화가였으며, 비텐베르크 시장이었고, 루터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루터의 신앙개혁을 성공할 수 있게 했던 세 번째 인물이다. 그는 당시 뒤러(Dürer)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였다. 그가 그림으로 남긴 많은 작품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 개혁신앙의 흔적이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신앙개혁을 위한

루터의 지지자들, 멜랑히톤과 크라나크



▲ 시청사 앞 성경을 들고있는 루터동상.

인쇄와 그림으로 사용하였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성경은 1522년 9월에 초판 300부가 그의 집에서 인쇄되었다. 영국의 위클리프가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한 이래 두 번째로 성경이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다. 초판은 급속히 퍼져 곧 절판이 되어 12월 1,500부가 다시 인쇄되었다. 성경출판은 신앙개혁운동이 거세게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도 이곳에서 인쇄되어 보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그의 집엔 당시 사용했던 인쇄기가 전시되어 있다.

루터의 개혁의지와 정신은 말씀 묵상에서 나왔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해 몸부림치던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 문제를 로마서를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누구도 들을 수 없었고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신앙의 문제점을 묵상을 통해 발견하고, 교회 개혁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개혁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한화수 목사(CH630공동체)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다. 그 특별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

다. 이유가 있어서 오셨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눅 12:4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론 휴유지는 <불씨>라는 책에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불은 시작이다. 책 <불씨>는 요네자와 번(藩)에 새로운 번주(藩主) ‘우에스기 요잔’이 부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타야 고개’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됐다. 그는 노숙을 하면서 자신이 부임하는 곳의 실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화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 때, 화롯불의 불씨를 보고 “이거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사람들

을 불러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롯불 안의 불씨를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불씨는 시작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불씨에 담아낸 것이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불이 붙어야 한다. 그 불이 붙으면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불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불은 지속하게 한다. 우에스기 요잔은 불씨를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불씨에 담긴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아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중신들의 고정관념과 정치적 계산이 불씨에 담긴 의미보다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주기 바란다. 우선 자신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타인의 가슴에도 그 불을 옮겨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나 자신을 불태우겠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불에는 벽을 넘어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의 불이 붙으면 시작하고, 지속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 오셨다. 또 다른 사람의 가슴에 그 불을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식어진 가슴에 예수님의 불이 붙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을 지속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불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CCF, 부천, 남양주 전도집회 열매 풍성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도집회가 한창이다. 교회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참 좋은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CCF(Christian CEO Forum)와 부천과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 개최한 전도집회 현장을 다녀왔다. / 정현주 기자, 김영선 기자, 이소정 기자



부천여성사역 전도집회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CEO 전도집회, 'The멋진 당신'

경제인들에게 12월은 가장 바쁜 달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일보다 우선인 CEO들이 있다. 바로 CCF(Christian CEO Forum)소속 성도들이다.

CCF가 지난 6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15 The 멋진 당신'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경제인 5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는 런던과 뉴욕,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 '린든 네리'가 간증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겸손하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다.

월가의 투자전문가 빌 황은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각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자"고 피력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자"고 축사했다. 이날 CCF가 개최한 전도집회에서는 참석자 19명이 교회출석에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25명이 Christian CEO Leadership School 등록에 관심이 있다고 표명했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집회, 38명 예수 영접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지난 9일 전도집회

'Christmas for You'를 개최했다. 이날 전도집회에는 53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38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전도대상자들이 초청자들을 위해 두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한 열매가 분명하다.

이미경 성도는 부모님을 위해 15일 동안 아침 금식기도를 했다. 그 덕분에 그녀의 아버지가 난생처음 교회에 출석했고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 설교한 박형준 목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걸라"며 전도대상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 결신한 38명은 한 달 동안 새신자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예정이다.

남양주 수요일여성예배 전도집회 결신율 82%

남양주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서도 지난 9일 전도집회 'Christmas for You'를 열었다. 이날 전도집회에는 17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1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결신율이 무려 82%나 됐다.

이날 전도집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CCM가수 나무엔의 특송, 김현실 목사의 메시지, 결신 순으로, 2부 행사는 식사 교제, 신지현 집사의 간증, 자선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실 목사는 "엄마처럼 언제든지 달려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도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10년 전 중국에서 이민 온 손은혜 성도는 "생전처음 교회에 왔는데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면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서빙고·양재 결혼예배 시간 및 방식 변경

결혼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양재 결혼예배 시간과 일부 진행방식이 변경된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로 횟수를 늘리고, 양재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로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빙고 결혼예배 장소와 피로연 장소, 피로연 준비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양재 결혼예배 장소와 피로연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피로연 준비는 교회 식당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양재 온누리교회 토요일 일반 점심식사는 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학생 위주의 도시락으로 변경된다. 문의: 02-3215-3179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오비히로 교회 사모들에게 통역자 없이 일본어로 일대일 양육을 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 첫 아웃리치

오비히로 목회자 사모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지난 4월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을 수료한 3명(서승욱 권사, 심우영 성도, 김정희 성도)이 특별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들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5박6일 동안 홋카이도 오비히로에서 목회자 사모 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을 수료한 양육자들이 현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우에다 온누리교회 하카타타 목사, 서

빙고 일본어예배부 김영숙 선교사, 요시하라 목사도 힘을 보탰다.

일대일 위원회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7주 동안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를 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양육자 77명을 배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네팔 출신 초등학교생 자매 최우수상 수상

온누리M미션이 지난 13일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서 11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팔 출신 초등학교생 자매 '스미리티'와 '드리스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아브라함(네팔)이 고급반 1위, 전드라(네팔)가 중급반 1위, 알로나(카자흐스탄)가 초급반 1위를 차지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교장 이영복 장로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했고, 심사위원장 원우현 장로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제들이 한 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을 키우는 모습이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다"고 심사평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매주 주일 오후 1시~2시 2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01호에서 진행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열린다성경 아카데미 '신·구약성경' 무료공개 강좌

열린다성경 아카데미에서 구약편과 신약편 무료공개 강화를 실시한다. 구약편은 1월 11일 오후 7시30분, 신약편은 1월 18일 오후 7시30분에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구약편은 '분열왕국시대 따라잡기'를 주제로 신약편은 '사도 바울 전도여행 따라잡기'를 주제로 강의가 이

어진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의는 류모세 선교사가 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희망하는 강좌와 이름 등을 전송하면 된다.

문의: 010-4902-102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동부요양센터 세레식

지난 16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동부요양센터가 개원 이래 열여섯 번째 세레식을 거행했다. 이번 세레식에서는 어르신 9명이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정순국 어르신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셨다"면서 "눈물 흘리며 세례를 받은 어머니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 선교사가 보낸 편지



람풍족 복음화의 꿈이 가까워지고 있다

/ 추주엽 선교사

나는 람풍족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다. 은누리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람풍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님들께 알리고 싶다.

람풍족은 1996년 은누리교회가 미전도 종족으로 입양하였다. 1999년 1가정, 2010년 1가정, 2013-2014년 2가정을 파송했다. 교회 람기모(람풍 기도모임)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CMN과 각 공동체, 중고등부와 JDS 학생 등 수많은 성도들이 섬겨주고 있다.

람풍족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스마카시 은누리 메트로 사역’이다. 현지어로 고아원이란 뜻인데, 보육원과 동일한 사역이라고 보면 된다. 중고등학생 45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동안 목사 후보생 1명을 배출했고, 신학생 5명, 신학 후보생 7명을 양육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독교대학 및 간호대학, 한국의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리더십으로 양육

중인 대학생이 30여명 정도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거나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도 10여 명에 이른다.

두 번째는 ‘엑스트라 무랄 사역’이다. 이 사역은 지역교회와 교단, 기독교병원과 은누리교회의 협력사역이다. 엑스트라 무랄(벽을 넘어 서라는 뜻)은 지역의 한계를 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병원과 교회가 협력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역이다. 교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영적인 부분을 보살피고, 병원은 병든 몸을 치료해주는 연합사역이다. 교회는 마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병원은 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형태다. 극빈자가 오면 원목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교육 사역이다. M시에 센터를 세워 이곳에서 방과 후 교실처럼 오후나 영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섬길 영

어 교사를 훈련시켜 복음전도자로서 파송하고 있다. 이미 B도시에서 4명을 훈련해 파송했다.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 2011년 H목사와 함께 P지역에 농장을 세워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이 마을은 무슬림 마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척이 아주 심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의료사역을 펼친 이후부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한국 의료팀의 탁월한 치료 덕택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례는 S지역의 열매다. 이 지역 교회에서 은누리교회 의료사역팀과 현지 M병원이 협력해 의료사역을 실시했다. S브릿지 자매들이 땀으로 온몸이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무슬림 환자들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3

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Y목사는 10여 년 전부터 마을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Y목사의 극진한 돌봄으로 마을 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다. 5년 만에 50명이던 성도가 150명으로 늘었다. 이 일을 계기로 M병원에서 흡케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다.

람풍족 복음화 사역은 현지 지역교회와 기관이 연합해야 효과적이다. 지금은 람풍 선교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현지 교계와 단체, 사역자들, 외국 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드디어 현지 교회와 교단들이 람풍족 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제 람풍족 복음화를 위해 걸음마를 댄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것이다.



가정이 회심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Y목사에

람풍족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42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권민호, 홍형주 부부

“사랑해”와 “당신 최고야”

아내의 요청으로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게 되었다. 배운 것도, 느낀 것도 많은 시간이었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기 전에도 부부 사이에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다. 42기 젊은부부학교에서 부부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내의 언어를 몰랐으니 소통이 될 리 없었다. 나는 아주 간단한 아내의 언어를 배웠다.

“사랑해”

아내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당신 최고야”

이 간단한 말로 부부 사이에 소통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는 칭찬과 인정하는 말이 필요 없고, 남편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사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아내에게는 칭찬하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남편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을 인정하는 마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더 잘 표현되는 것 같다.

논리로 무장한 내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왜 아내에게 패배했는지도 알게 됐다. 언어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싸울 때 잘잘못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늘 자존심을 세웠던 내가 부끄러웠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부부싸움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아내를 사랑하는 나는 알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어떻게 풀어야할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서로의 불안전함이 부부 사이의 갈등 요소다. 나는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웠다.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빈틈이 있다. 만약 회사 일과 가사 일로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행복해지는 간단한 원리다. 작은 봉사만으로도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니.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닫고 나서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르니까 상대방의 빈틈을 더 잘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부부는 성향이 비슷하다. 그렇기에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우리 부부의 비슷한 성향도 자랑스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독립된 부부, 자녀 양육, 내면의 문제까지도 많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열정적으로 수고해주신 젊은부부학교의 스태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끝으로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 남양주 첫 순장사관학교 수료 간증



/ 이원해 성도(남양주 은누리교회)

“순과 순원을 살리는 순장 되겠습니다”

내가 순장사관학교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아내와 주변 분들의 권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 여름 유년부 아웃리치에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한 순종 때문이다. 나는 아웃리치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에 대해 깊이 묵상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했다. 바로 그 때 순장사관학교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조용히 수업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조장이 됐다. 조원들이 나를 지명했다. 순장사관학교 시작부터 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가사를 되새기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순종하자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중간에 조원 2명이 과정을 그만뒀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순장이 되어 순도임을 하는데, 순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마음일까?”

순장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순원들을 섬겨야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12주차 과정을 통해 말씀, 기도,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다. 순과 순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야 순원을 살리는 순장이 되는지,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순을 만들 수 있는지도 배웠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는 순장이 되어야 순원도, 순도 살아난다는 것을 배웠다. 순장의 힘으로 끌고 가는 순도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는 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락방장님과 순장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동안 순도임에서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순장님과 순원들이 시험에 들거나 순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쉬움도 있었다. 아웃리치를 한 번도 준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났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는데, 아웃리치 가기 전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웃리치를 못 갔다. 조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마음이 슬플 수가 없었다. “결석 없이 잘 해왔는데, 하필 오늘 이렇게 되다니”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조원들의 아웃리치가 은혜로운 섬김이 되기를 기도했다.

순장사관학교에서 배운 섬김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직장도 교회, 가정을 섬기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가정과 회사 사정으로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하영철 장로(성북공동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난번 중강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예화로 찰스 쉐던의 책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인용하셨다. 나는 30여 년 전 이 책을 읽었다. 목사님이 이 책을 이야기 하셨을 때 그때 그 감동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감회에 젖은 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순방할 때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면하였다.

이 책은 1890년대에 쓰인 기독교 신앙서적의 고전이다.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 쉐던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두 힘을 합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노력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를 구상하면서 쓴 책이다.

미국의 한 도시 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한다. 1년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사 운영자인 한 성도가 ‘예수님이라면 이 기사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회사 간부와 직원들을 설득하지만 반대에 부딪히는 일, 독자와 광고주가 떨어져나가는 아픔, 이로 인해 불거진 재정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등이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적용함으로써 삶과 직장과 도시가 변화되어 거룩해져가는(聖市化, 성시화) 실현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읽어도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

는 책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가고, 이쁜쁜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주문 외우듯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질문해야 한다. 나의 앞에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나보고 풀어보라고 숙제를 내주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매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권사칼럼 한소영 권사

성령의 사람 되어

가을의 끝자락, 파주제자교회 수양관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성령을 사모해 먼 길을 달려온 주의 자녀들
대전, 목포, 부산, 아니 더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
이곳을 두세 번 오는 이들도 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영화처럼 시작 된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 진다
내 삶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기도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를 요청해 본다

부활의 주님은, 삶의 애환이 담겨진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느덧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눈물과 땀범벅이 되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다
다음날, 영적전쟁까지 치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전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로 거듭났다

성령수련회를 지난 15년 동안 섬겨오며
수없는 눈물과 회복,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
각자 위치에서 일사분란하게 섬기는 스태프들
최선을 다해 섬겨줘 고맙소

육십 번째 성령수련회는 아쉽게도 끝이 났지만
내년에 또 열릴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여
성령수련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신앙에세이 이정엽 목사(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우리는 시간과 역사의 청지기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사실은 무척 짧다. 80세 노인이 생애를 날짜로 계산해 보았다. 식사하는 데 6년, 일하는 데 21년, 잠자는 데 26년, 세면하는 데 228일, 넥타이 착용하는 데 18일, 남이 약속을 제때 안 지켜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 었다. 반면, 아이들과 노는 데는 26일, 혼자 불안으로 허비한 시간이 5년, 담배 피우는 데 1년이 걸렸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이었다고 한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쓴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속도로 계산했다. 10대에는 시속 10킬로미터, 20대에는 시속 20킬로미터, 30대에는 시속 3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50대, 60대가 되면 시속 70~80킬로미터로 달린다고 한다. 인생 후반부로 향해 갈수록 가속이 붙어 세월이 훨씬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 해

야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인생은 30+3으로 요약된다. 3년의 공생애를 위해 30년을 준비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고백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 마태복음 15장까지를 할애하셨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의 어린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그냥 사시지 않고 모든 것에 의미를 두신 행보를 감당하셨던 것이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답게 시간의 마스터(master)로서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셨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도 예수님처럼 이런 의미 사건을 창조하던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후에 오셔서 우리 생애에 종말

이 된다면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웨슬리는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대로 살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짧은 고백은 그의 삶이 철저히 기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가지 지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의미있는 사건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해가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겨우 십여일 남았다. 혹자는 시간이 우리 속사정도 모르고 무심하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듯 하다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속도감에 의욕상실에 걸리거나 앓을지 적잖이 염려가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시간을 내 일만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한 해, 내가 일생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찾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려고 표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 되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싸움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흉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서 활동하겠습니까. 사탄은 아름다운 지성의 모습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탈을 쓰고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마술사 한 사람이 이토록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잘 속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과 점성술과 마법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보다 귀신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수를 역임하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윈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을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전투적 무신론자는 자기만 무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을 변증하고 증거해서 유신론자를 모두 무신론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언어의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왜 성경보다 위대한지를 복잡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현혹시킵니다. 시몬이 물리적인 마술로 사마리아를 사로잡았다면 그는 언어의 마술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자기보다 유식한

사람인줄 압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것입니다. 복음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복음 전파가 영적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복음,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했던 복음이 영적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마리아, 제2의 예루살렘이 되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6절).

표적을 통해서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진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역사적 앙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가서도 안 되는 지역이며, 땅도 밟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편견을 깬 사건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문화적, 역사적,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역사 앞에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영적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

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14~17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내리시지 않았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능력과 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세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한 것은 사마리아가 또 다른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이제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편협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기쁨 자체를 추구하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큰 기쁨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 과학이야기 6. 공룡



제승모 박사
(창조과학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피노사우루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이름들은 공룡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어릴 적 보던 영화 때문인지 공룡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 공룡은 일반인들에게 꽤나 친숙한 동물이 되었다. 요즘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동물을 꼽으라 하면 1,2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 지식 백과사전에는 공룡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후기(약 2억년전)에 나타나 쥐라기와 백악기에 크게 번성하다가 백악기 말(약 6천5백만 년 전)에 멸종 된 대형 육상 파충류’라고 소개하고 있다.

1841년 8월 영국 과학진흥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공룡’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리처드 오웬경은 화석 뼈(이구아노돈)를 연구하는 해부학자다. 이후 많은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수중생활을 한 고공룡과 단공룡이 육상 공룡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룡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이다. 격변에 의해 화석이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공룡도 있고, 몸무게가 무거워 날 수 없는 익룡도 있다. 지구상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은

당시 지구와 현재 지구가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생명체들이 훨씬 오래 살았고, 더 크게 자랄 수 있었고, 날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진화론으로는 과거의 지구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땅이 움직였던 노아시대 대격변을 상상한다면 이해하기 쉽다.

창세기 1장 19~25절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또한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공룡도 함께 창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공룡과 유사한 생물에 대해 ‘공룡’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 수천 년 전 쓰인 율기에 ‘베헤못’이라고 표현된 동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뱀목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얹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욥 40:15~19).

율기의 베헤못은 태연히 풀을 뜯어먹는 거대한 공룡과 흡사하다. 진화론적으로는 사람이 공룡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을 상상할 수 없지만, 실제 증거들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고대 유적지에서 사람이 직접 조형이나 그림으로 만든 공룡이 발견되었다. 또 직접 보지 않았다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모습의 공룡들을 재현할 수 있었을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8천 만 년 전의 것으로 여겨졌던 공룡 뼈에서 적혈구와 탄력 있는 연부 조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공룡이 멸망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율기에 나오는 베헤못이 정확하게 어떤 생물을 지칭하는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대한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것인지, 과학자들의 진화론적 추정에 신뢰할 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와 지식, 이해관계로 믿음의 눈이 흐려지기도 한다. 온누리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만난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바보행전을 써나가고 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써 내려가는 예수바보행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B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헌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 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수 오전 9:15 누리홀

양재: 매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주 수 오전 9:30 온유홀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1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21차 랍풍 이웃리치 팀원 모집

일정: 2016년 2/6(토)~2/12(금)

사역지: 인도네시아 랍풍

내용: 대체의료(수기요법) 및 청소년사역

비용: 약 120만원

기타: 수기요법 종사자 및 의료, 미용,

발마사지, 워십 가능자 모집

문의: 일반사역 이성주 (010-9443-9032)

수기요법 엄현정 (010-8264-6909)

2000선교 아르바이트 모집

분야: 2000선교 선교데이터 입력, 후원사역

부 선교데이터 입력

시간: 2000선교(화~금 오전 9시~오후6시),

후원사역부(화~금 오전 10시~오후5시)

근무기간: 1월 5일 ~ 1월 22일(예정)

근무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자격: 온누리교회등록교인, 컴퓨터기초능

력 보유,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 전화응대

친절히 하실 수 있는 분

지원방법: 1차 이력서 이메일 접수(zhixi-

anonnuri.org), 2차 면접(개별공지)

모집: 12월 26일까지

문의: 박지현 간사(02-3215-320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알람판을 참고

2000선교본부 팀장 간사 모집

모집: 팀장 간사 1명(남여 구분 없음)

필수요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사무행정 가능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유자

선교 관심자 또는 경험자 우대

업무: 선교 행정 및 기획 지원

근무조건: 교회 내 간사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

서(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이메일(yusup@onnuri.org)

문의: 전영옥 간사(02-3215-3216)

두란노어머니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2016년 1월 5, 7, 12, 14일

매주 화, 목요일, 총4회, 10:00~15: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사: 한은경, 김성목, 이기복, 주미향, 박종길

접수: 02-2182-9114, www.mother.or.kr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화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2015성탄특집프로그램

CGNTV가 준비한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뜻깊은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배] 생방송 성탄축하 예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2부 예배는 남대문 5가 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현장 생중계
방송시간 : 12/25 (금)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2. [영화] 크리스마스의 선물
크리스마스 때마다 경쟁을 하게 되는
두 장난감 가게의 관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룬 영화
방송시간 : 12/24 (목) 오후 10시



3. [문화] 온누리 챔버 연주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온누리 챔버 연주회
(출연 : 소프라노 황후령,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 피아니스트 이지원, 온사랑 합창단)
방송시간 : 12/25 (금) 오후 8시



4. [집회]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
40~50대 남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방송시간 : 12/26 (토) 오후 7시



5. [문화]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출연
방송시간 : 12/24 (목) 오전 11시 30분



6. [문화] 지구촌 반상회
기쁘다 지구촌에 예수님 오셨네
방송시간 : 12/25 (금) 오전 10시 30분



7.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성탄 위십 배우기, 브라스밴드,
크리스마스 뮤지컬
방송시간 : 12/25 (금) 오후 5시 20분



8. [문화] 토크콘서트 힐링유
홀리원, 주리, 홍의석의
'Happy Christmas to You'
방송시간 : 12/25 (금) 오후 10시 40분

주 | 간 | 편 | 성 | 표

12/20(주일)	12/21(월)	12/22(화)	12/23(수)	12/24(목)	12/25(금)	12/26(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한국교회, 평화의 공동 체를 꿈꾸다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예수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00 홍정길, 이동원의 아주 특별한 하루 23:50 페리 노블의 믿음의 승리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열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임직자스쿨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3:50 [성탄특집드라마] 택시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커피란식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교회)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00 [성탄특집영화] 크리스마스의 선물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09:00 성탄축하예배 1부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성탄축하예배 2부 13:1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00 성탄축하예배 3부 15:30 [성탄특집영화] 크리스마스의 선물 20:00 온누리 챔버 연주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사도행전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산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민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홍정길, 이동원의 아주 특별한 하루 19:00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 21:20 2015 THE 멋진 당신 23:00 [CGNTV 연말특집 열린대담] 돌아보는 2015, 한국교회와 사회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